

연결어미와 결합한 양태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

— ‘의지’를 중심으로 —

구로시마 노리후미 (黒島 規史)
구마모토학원대학, 강사

초록

본 연구는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이 결합할 때 나타내는 의미를, 특히 ‘의지’에 초점을 맞춰 그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길임(1998), 박재연(2006)에서는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 ‘-겠-’이 결합할 때 양태의 주체가 무슨 인칭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도 연결어미와 결합한 ‘-겠-’의 의미를 고찰했는데 그 의미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양태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 ‘-겠-’, ‘-르 테-’, ‘-르 것이-’가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지’의 의미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겠-’이 가장 ‘의지’의 의미가 제한되고 ‘-르 것이-’는 그 의미가 덜 제한된다. 둘째, 이러한 ‘의지’가 제한되는 현상은 양태 형식과 종속절과의 어울림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의지’가 보다 제한되는 양태 형식은 종속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전형적으로는 주절에서 1 인칭 주어일 때 표현되는 ‘의지’의 의미는 종속절에도 나타날 수 있는 양태 형식의 경우 ‘의지’가 제한되기 쉽다는 것이다.

키워드: 연결어미, 양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점, 의지, 추정

1. 머리말¹⁾

한국어는 교착적인 특성을 가지며 여러 형태소들이 결합하는 현상을 보인다. 양태와 같은 기본적으로는 주절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요소도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종속절에 나타날 수가 있다.

상, 시제, 양태를 나타내는 접미사와 연결어미와의 결합 여부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권재일 1985, 남기심 1994, 이은경 2000 등). 남길임(1998), 박재연(2006)에서는 특히 양태 접미사 ‘-겠-’이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양태의 주체가 무슨 인칭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남길임(1998), 박재연(2006)에서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겠-’이 나타내는 의미도 다루고 있으나 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양태 형식들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각 양태 형식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양태 형식 ‘-겠-’, ‘-르 테-’, ‘-르 것이-’가

1)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쿄외국어대학의 남윤진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다.

나타내는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그 의미가 문법 구조에 따른 것임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 (i) 각각의 양태 형식은 주절에서는 말하는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종속절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된다.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겠-’, ‘-르 테-’, ‘-르 것이-’ 중에서 ‘의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위계로 제한된다. 여기서 왼쪽에 위치한 양태 형식은 종속절에서도 ‘의지’의 의미가 덜 제한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위치한 양태 형식은 ‘의지’의 의미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르 것이-’ > ‘-르 테-’ > ‘-겠-’

- (ii) (i)의 위계는 각각의 양태 형식이 얼마나 종속절에 나타나기 쉬운가 하는 정도와 상관이 있다.

2.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의 결합 양상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의 결합 양상을 고찰한 연구로서는 남길임(1998), 박재연(2006), 구로시마 노리후미(2020)가 있다.

남길임(1998), 박재연(2006)에서는 주로 연결어미와 ‘-겠-’이 결합할 때 ‘-겠-’의 주체를 다루었다. 남길임(1998)에서는 연결어미 중에서 ‘-겠-’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연결어미를 구별한 다음에 ‘-겠-’을 그 주체가 후행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주어 중심 양태(subject-oriented modality)’와 단문에서처럼 말하는이와 일치하는 ‘말하는이 중심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로 나누었다. 전자에는 ‘-면’, ‘-더라도’, ‘-니까’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니, -지만, -는데’ 등이 포함된다.

박재연(2006)은 남길임(1998)의 논의를 더 발전시켜서 연결어미와 ‘-겠-’이 결합할 때의 양태 주체는 문장 유형(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밝혔다. 박재연(2006: 131)에서는 단문에서처럼 ‘-겠-’의 양태 주체가 말하는이가 되는 ‘-니, -지만, -는데/는데’는 종결어미와 유사한 독립성이 높은 절이라는 것도 지적하였다.

구로시마 노리후미(2020)는 연결어미와 ‘관형사형+ 것 같-’, ‘-겠-’, ‘-르 것이-’가 결합할 때 그 양태 주체가 어느 인칭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각각의 양태 형식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밝혔다. 그러나 구로시마 노리후미(2020)에서는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이 결합할 때 양태 형식의 의미가 일부 제한되는 이유를 부사절이 가지는 독립성의 정도로 파악하였는데 여기서는 양태 형식의 의미의 제한 양상을 연결어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그쳤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주절에서의 양태 형식의 특성도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3. 연구 방법과 대상

본 연구에서는 “21 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에서 추출한 용례를 분석하였다. 현대한국어를 고찰하기 위해 1990 년 이후에 나온 작품에 한정하여 장르는 ‘상상적 텍스트’, ‘상상’을 포함한 ‘소설’, ‘시나리오’, ‘드라마 극본’, ‘희곡’, ‘방송극(대본)’을 대상으로 삼았다. 구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드라마 10 작품의 대본을 추가하였다. 코퍼스의 규모는 모두 약 1000 만 어절이다.

연구 대상은 ‘의지’와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양태 형식 ‘-겠-’, ‘-르 테-’, ‘-르 것이-’를 선정하였다. ‘-르 테-’에 관하여, 여기서는 ‘-르 터이-’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안주호(1997)가 지적하듯이, ‘터이-’는 관형사어미 ‘-르’ 말고 다른 관형사어미도 앞에 올 수 있는데 ‘테-’는 ‘-르’만을 허용하는 등 형태적인 면에서도 통사적인 면에서도 ‘-르 터이-’와 ‘-르 테-’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단, ‘-르 것이-’는 ‘-르 거(이)-’도 포함한다.

연결어미는 현대한국어에서 문어와 구어의 구별없이 자주 쓰이는 ‘-면서, -다가, -더니, -(아/어)서, -고, -니까, -면, -(아/어)도, -는데/는데, -지만’ 중에서 양태 형식과 결합 예가 있었던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4. 주절과 종속절의 시점

‘의지’라는 의미는 전형적으로 단문의 주절에서 1 인칭 주어일 때 표현된다. 따라서 ‘의지’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종속절에서는 아예 나타날 수 없거나 종속절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출현 환경이 제한된다.

노다 히사시(1995)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여기서”라는 발화 현장을 기준으로 한 “현장 의존 시점”과 다른 문맥에 의존하는 “문맥 의존 시점”을 구별하였다. 일본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ta 는 (1a)처럼 주절에서 쓰일 때는 발화시인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²⁾ 이것이 현장에 의존하는 시점이다. 한편, -ta 가 (1b)와 같은 종속절(관계절)에서 쓰일 때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사건이 일어날 “4, 5 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종속절에서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것이 문맥에 의존하는 시점이다.

- (1) a. kaigai=de boranteia+katsudou=o shi-te ki-ta.
해외=LOC 자원봉사+ 활동=ACC 하다-CVB 오다-PST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

2) 예문 (1), (2)에서 사용한 약호는 다음과 같다:

ACC: accusative, AVS: adversative, CVB: converb, DAT: dative-locative, INT: intention, LOC: locative, MNN: manner, POSS: possibility, PST: past, SPEC: speculative, TOP: topic

b. 4, 5nen=go=ni=ha kaigai=de boranteia+katsudou=o shi-te ki-ta
 4, 5년=후=DAT=TOP 해외=LOC 자원봉사+ 활동=ACC 하다-CVB 오다-PST
 hito=o sekkyokuteki=ni saiyou=suru-youni naru=darou.
 사람=ACC 적극적=DAT 채용=하다-MNN 되다-SPEC
 “4,5년 후에는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온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다.”

(노다 히사시 1995: 328)

노다 히사시(1995)는 (1)과 같은 시제 현상 외에도 태(voice), 양태(modality), 정중함(politeness) 현상에서 “현장 의존 시점”과 “문맥 의존 시점”이 관찰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 ‘의지, 청유’를 나타내는 -(y)ou 는 (2a)처럼 주절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 형태소는 (2b)처럼 종속절(부사절)에는 아예 나타날 수 없으며 나타날 때도 역접적인 의미(ik-ou-ga “가 봤자”)를 나타낼 뿐이지 주절에서처럼 ‘의지, 청유’는 나타낼 수 없다.

(2) a. kondo=wa hayame=ni ik-ou.
 다음=TOP 일찍=DAT 가다-INT
 “다음에는 일찍 가자/갈래.”

b. *kondo=wa hayame=ni ik-ou-kedo, muri=kamo shirenai.
 다음=TOP 일찍=DAT 가다-INT-CVB.AVS 무리=POSS
 “* 다음에는 일찍 가자지만/갈래만 무리일지도 모른다.”
 (노다 히사시 1995: 343)

한국어에서도 (1), (2)와 같은 예와 마찬가지로 ‘의지’를 나타내는 ‘-르게’, ‘-르래’와 같은 접미사는 종속절에 나타날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겠-’, ‘-르 테-’, ‘-르 것이-’는 종속절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일부 부사절 안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되며 의미 간에 빈도차를 보인다. 각 양태 형식은 주절에서는 1 인칭 주어일 때 ‘의지’의 의미를 제한없이 나타낼 수 있지만 부사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 5 장에서는 각 양태 형식이 주절에서 나타내는 의미와 종속절(부사절)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고찰한다.

5. 양태 형식이 주절과 종속절에서 나타내는 의미

‘-겠-’, ‘-르 테-’, ‘-르 것이-’는 단문의 주절에서는 ‘의지’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데 종속절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히 ‘의지’에 초점을 맞춰 각 양태 형식이 주절과 종속절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본다.

5.1. ‘-겠-’

5.1.1. 주절에서의 ‘-겠-’의 의미

‘-겠-’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노마 히데키(1988)의 의미 분류를 따른다. 노마 히데키(1988)에서는 ‘-겠-’이 나타내는 의미를 다음 예문 (3)-(6)처럼 4 가지로 나눠 각 예를 ‘거취(去就)’ (3), ‘처지’ (4), ‘평가’ (5), ‘귀결’ (6)을 말하는 문장에서 쓰이는 ‘-겠-’이라고 분석하였다.

(3) 내가 사장님한테 항의 편지를 쓰겠어요. (노마 히데키 1988: 15)

(4) a. 더 이상 못잡겠오. (노마 히데키 1988: 24)

b. 몸은 별일 없는데 가슴 속이 아파 죽겠소. (노마 히데키 1988: 27)

(5) 난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 (노마 히데키 1988: 34)

(6) 이러다간 정말 미궁에 빠지겠어. (노마 히데키 1988: 39)

(3)처럼 주체가 말하는이 자신이고 용언이 의지동사일 때 ‘-겠-’은 말하는이의 ‘거취’를 표현한다 (노마 히데키 1988: 15). (4)처럼 ‘처지’를 말하는 문장에서 ‘-겠-’은 다음과 같은 용언과 결합하여 나타난다(ibid.: 23).

(i) 일부의 수행동사

(ii) ‘못’과 함께 말하는이에게 불리한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

(iii) ‘알다’, ‘모르다’와 같은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

(iv) ‘죽다’, ‘쓰러지다’, ‘미치다’ 등 말하는이에게 불리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5)처럼 ‘-겠-’이 형용사나 ‘-르 수 있다/없다’, ‘-(아/어)야겠다’와 같은 우언적 형식과 결합할 때 말하는이의 ‘평가’를 나타나게 된다(ibid.: 30-31). (6)은 지금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의 ‘귀결’을 나타내는 용법이다(ibid.: 38).

본 연구에서는 (3)과 같은 용법을 다른 양태 형식과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의지’라 부르겠다. 구로시마 노리후미(2020)에서도 논하였듯이 연결어미와 ‘-겠-’의 결합 현상을 고찰할 때는 ‘-겠-’의 의미를 (3)-(6)처럼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의지’의 용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4)-(6)의 용법을 ‘개연성 판단’으로 묶어 놓는다.

5.1.2. 부사절에서의 ‘-겠-’의 의미

‘-겠-’은 연결어미 ‘-지만’, ‘-는데/는데’, ‘-면’과 결합하였을 때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다만, ‘-겠-’이 나타내는 의미 중에서 ‘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다.

‘-겠-’과의 결합 예가 많은 연결어미부터 표 1 에 제시한다. ‘+’는 결합 예가 있었음을, ‘-’는 없었음을 뜻한다. 5.1.1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연구에서는 ‘-겠-’이 나타내는 의미는 ‘의지’를 제외하고 ‘개연성 판단’으로 하나에 묶어 놓았는데 ‘-겠-’이 나타내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용법 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더니’는 ‘-겠-’과 결합이 가능하나 ‘처지’ (4) 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코퍼스에서 찾지 못했다.

표 1. 연결어미+‘-겠-’의 의미

	용례 수	‘의지’		‘개연성 판단’	
-지만	820	+	(24)	+	(796)
-는데/ㄴ데	122	+	(15)	+	(107)
-고	50	-		+	
-면	29	+	(3)	+	(26)
-(아/어)서	17	-		+	
-니까	11	-		+	
-더니	4	-		+	
-(아/어)도	3	-		+	

연결어미와 ‘-겠-’이 결합하여 ‘의지’를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7) 담임인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기대는 마십시오. [BEXX0012]

(8) 그럼 친구로서 한마디하겠는데 요즘 널 보고 있으면 화가나. [CJ000255]

(9) 기다리겠으면 대문 밖에서 기다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BRE00290]

‘-지만’이 ‘-겠-’과 결합하여 ‘의지’를 나타낼 때는 ‘-기는(야) 하겠지만’이라는 구문으로 나타나는 예가 24 개 중 7 개로 비교적 많았다. ‘-는데/ㄴ데’는 (8)처럼 듣는이에게 충고나 선언을 하는 장면에서 쓰이는 예가 많았다. 다른 예로는 “충고하겠는데”, “말해 두겠는데”와 같은 예가 있었다.

5.2. ‘-르 테-’

5.2.1. 주절에서의 ‘-르 테-’의 의미

‘-르 테-’는 주절에서 1 인칭 주어일 때 ‘의지’를 나타낸다. (11)처럼 ‘-르 테-’가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르 테지’로 추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10) 나는/*그는 내일 엘에이로 출장을 갈테다. (안주호 1997: 245)

(11) 수산시장의 생선들이 더 쌀테지? (안주호 1997: 253)

5.2.2. 부사절에서의 ‘-르 테-’의 의미

‘-르 테-’는 연결어미 ‘-니까’, ‘-면’과 결합할 때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겠-’과 결합할 때와 달리 ‘의지’, ‘추정’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가 ‘-니까’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르 테-’와의 결합 예가 많은 연결어미부터 표 2 에 제시한다. ‘-면’에 관하여 결합 예의 대부분이 ‘이르테면(일테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굳어진 하나의 표현으로 보고 표 2 에서는 제외했다.

표 2. 연결어미+ ‘-르 테-’의 의미

	용례 수	‘의지’	‘추정’
-니까	488	+ (396)	+ (92)
-는데/-는데	364	-	+
-고	57	-	+
-면	54	+	-
-지만	47	-	+

‘-르 테-’가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의지’를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12) 내가 사줄 테니까 더 비싼 거 먹어요. [BRE00291]

(13) 또 자수같은 걸 권할 테면 내 걸을 떠나라. [BRE00082]

‘-르 테니까’는 (12)처럼 보조동사 ‘-아/어 주다’와 결합하여 나타난 예가 많았으며 모두 71 개(-아/어 드리다 6 개를 포함함)였다. ‘-르 테면’은 ‘V₁르 테면 V₂’에서 앞의 동사와 같은 동사를 반복하는 구문(V₁=V₂)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5.3. ‘-르 것이-’

5.3.1. 주절에서의 ‘-르 것이-’의 의미

‘-르 것이-’는 주절에서 ‘의지’와 ‘추정’을 별다른 조건없이 나타낼 수 있다.

(14)가 ‘의지’, (15)가 ‘추정’을 나타내는 예이다.

(14)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을 거야. (국립국어원 2005: 772)

(15) 정수기 물이니 틀림없이 깨끗할 것이다. (국립국어원 2005: 772)

‘의지’의 의미는 1 인칭 주어일 때 기본적으로 표현되는데 듣는이에 대한 의문문에서도 ‘의지’를 물을 수 있다.

5.3.2. 부사절에서의 ‘-ㄴ 것이-’의 의미

‘-ㄴ 것이-’는 위에서 본 ‘-겠-’, ‘-ㄴ 데-’와 달리 많은 결합 예에서 ‘의지’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아/어)서’, ‘-지만’을 제외한 연결어미와 결합한 예문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예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연결어미+‘-ㄴ 것이-’의 의미

	용례 수	‘의지’	‘추정’
-고	101	+ (12)	+ (89)
-면	67	+ (63)	+ (4)
-니까	28	+ (17)	+ (11)
-는데/ㄴ데	25	+ (4)	+ (21)
-면서	12	+	-
-지만	10	-?	+
-(아/어)서	3	-?	+

‘-ㄴ 것이-’가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의지’를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16) 저는 그 숨은 얼굴을 찾을 것이고 맹세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CJ000279]

(17) 야, 기왕 피울 거면 좋은 담배 피워라. [3BES0003]

(18) 며칠 목을 건데 조용하고 깨끗한 방으로 주세요. [2CE00019]

(19) 제가 명수 대신 남을 거니까 걱정마십시요. [3BN20014]

(20) 헤어질 거면서 집은 또 왜 샀대? [BRE00303]

표 3 에 제시했듯이 이번 조사에서는 ‘-지만’, ‘-(아/어)서’와 결합하여 ‘의지’를 나타내는 예는 없었는데 ‘의지’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21) 어차피 다 먹을 거지만 일단 하나만 먹기로 했다.

(22) 나는 혼자 먹을 거라서 1 인분만 시켰다.

‘-지만’, ‘-(아/어)서’와 결합할 때도 ‘-르 것이-’가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 결합이 가능한 모든 예에서 ‘-르 것이-’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가 제한되는 정도는 양태 형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 6 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찰한다.

6. 종속절과의 어울림과 양태 형식의 의미

5 장에서 보았듯이 주절에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양태 형식도 부사절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의 결합에 따라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는 다르다. 이것은 각 양태 형식이 얼마나 종속절에 나타나기 쉬운가 하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표 1-3 에서 제시한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연결어미와 양태 형식이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결합과 그 비율을 표 4 에 제시한다.

표 4. 연결어미+ 양태 형식이 ‘의지’를 나타내는 비율

양태 형식	연결어미	‘의지’의 비율과 용례수	
-겠-	-는데/ㄴ데	12.3%	(15/122)
	-면	10.3%	(3/29)
	-지만	2.9%	(24/820)
-르 테-	-면	100.0%	(54/54)
	-니까	81.1%	(396/488)
-르 것이-	-면서	100.0%	(12/12)
	-면	94.0%	(63/67)
	-니까	60.7%	(17/28)
	-는데/ㄴ데	16.0%	(4/25)
	-고	11.9%	(12/101)

‘-겠-’은 ‘의지’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모든 결합 예에서 그 비율이 낮다. ‘-르 테-’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결합 예는 ‘-겠-’보다 적는데 비율은 꽤 높다. ‘-르 것이-’는 결합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율도 높다. 이러한 양태 형식 간의 차이는 각 양태 형식이 얼마나 종속절에 나타나기 쉬운가 하는 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겠-’은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결어미와의 결합 예가 가장 많다. 그뿐만 아니라 ‘-겠-’은 관형사절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23)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나는 알았다. [BRE00295]

단, ‘-겠-’이 관형사절에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이것이 예(4)처럼 ‘치지’를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다. ‘-르 테-’, ‘-르 것이’는 어떤 경우든 관형사절에 나타날 수는 없다.

‘-르 테-’는 주절에서 나타날 때보다는 부사절에 나타날 때가 더 많다. (24)처럼 ‘-르 테-’가 주절에서 쓰이는 예는 있으나 부사절에 쓰이는 예보다는 훨씬 적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드라마 코퍼스에서는 ‘-르 테-’가 주절에서 쓰인 예는 찾을 수 없었다.

(24) 난 네가 주는 거 안 먹을 테야. [2BEXXX18]

그리고 ‘-르 테-’는 ‘*가실 탭니까?’와 같은 결합이 불가능한 것처럼 (안주호 1997: 251), 주절에 나타날 때도 제한이 있다. 한편 ‘-르 것이-’는 ‘-르 테-’와 달리 주절에서도 별다른 제한없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양태 형식이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비율과 양태 형식과 종속절과의 어울림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위계를 세울 수 있다.

(25) ‘-르 것이-’ > ‘-르 테-’ > ‘-겠-’

여기서 왼쪽에 위치한 양태 형식은 종속절에서도 전형적으로는 주절에서 표현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오른쪽에 위치한 양태 형식은 ‘의지’의 의미가 왼쪽보다 제한된다. 이 위계는 종속절과의 어울림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오른쪽으로 갈 수록 종속절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양태 형식과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연결어미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박재연 2006, 구로시마 노리후미 2020),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내는 의미는 양태 형식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7. 맞춤말

본 연구에서는 양태 형식 ‘-겠-’, ‘-르 테-’, ‘-르 것이-’가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내는 의미에 대하여 특히 ‘의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조합에서 그 의미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전형적으로는 주절에서 1 인칭 주어일 때 표현되는 ‘의지’는 부사절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된다. 부사절에서 ‘-겠-’이 가장 제약을 받고 ‘-르 것이-’가 가장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은 각각의 양태 형식이 얼마나 종속절에 나타나기 쉬운가 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는 많다. 예를 들어, ‘-르 테니까’와 ‘-르 거니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물론 양태 형식이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내는 ‘의지’ 이외의 의미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병기(2006: 61)는 ‘-르 것이-’가 처음 나타났을 당시에는 주절에서보다 종속절에서 더 많이 쓰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어에서 ‘-르 것이-’는 주절에서도 부사절에서도 많이 쓰인다. ‘-르 것이-’의 통사적인 위치와 의미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가 하는 통사적인 문제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로시마 노리후미[黒島 規史](2020), 『定形性の観点から見た現代朝鮮語の副詞節』 (정형성의 관점에서 본 현대 한국어의 부사절), 도쿄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 용법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서울: 집문당.
- 남기심(1994), 《국어연결어미의 쓰임》,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남길임(1998), 〈‘-겠-’ 결합 양상에 따른 종속접속문 연구〉, 남기심(편) 《국어 문법의 탐구 IV》, 서울: 태학사, 423-451.
- 노다 히사시[野田 尚史](1995), 「現場依存の視点と文脈依存の視点」 (현장 의존의 시점과 문맥 의존의 시점), 仁田義雄 (編) 『複文の研究 (下)』, くろしお出版, 327-351.
-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1988), 「〈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 mood 形式をめぐって—」 (〈하겠다〉의 연구—현대한국어의 용언의 mood 형식에 대하여), 『朝鮮學報』, 129, 朝鮮學會, 1-73.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병기(2006),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1994), 〈텍스트에서의 접속어미의 기능 — 단편 소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을 대상으로 —〉, 《텍스트언어학》, 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87-317.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meaning of modal forms is expressed when the modal forms are followed by connective endings, and especially focuses on the volitive meaning. Nam (1998) and Bak (2006) investigated the issues related to the subject of modality when one of the modal forms, *-keyss-*, is followed by connective endings. In the previous studies, the meaning of *-keyss-* was also discussed, but it was not a central topic and other modal forms were not examined. The present paper focuses on the modal forms *-keyss-*, *-l they-*, *-l kes=i-*, all of which may express both volitive and epistemic meanings and explores how the volitive meaning is expressed when the modal forms are followed by connecting endings. This study shows that the volitive meaning expressed by *-keyss-* is more restricted than other modal forms and the volitive meaning expressed by *-l kes=i-* is less restricte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strictions in the modal forms contained in the subordinate clause. Since the volitive meaning typically can be expressed in the main clause with the first-person subjec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restrictions of the modal forms in the subordinate clause depends whether the modal form in question can readily appear in the subordinate clause.

Key words: connective ending, modality, perspective of subordinate and main clause, volition, inference